6월 13일(월) / 사11-14

▶**내용요약**: 11장은 메시아의 강림과 구원이 기록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평화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말씀한다. 12장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 1-12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13-23장은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다. 13장과 14장은 당시만 해도 작은 나라로 존재감이 없던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죄와 교만으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너 아침의 아들 (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1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로 미래도 다스리신다. 13장과 14장은 작은 나라에 불과하던 바벨론이 강성해질 것과 그 교만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예언한다. 장래 일을 내다보며 현재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자!

6월 14일(화) / 사15-18

▶**내용요약**: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가 기록된다. 모압은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어도 교만으로 인해 권면을 무시하고 결국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보여준다. 17장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파멸과 파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며 18장은 앗수르의 멸망과 구스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예언한다.

▶**질문**: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어느 산에 두신다고 하는가?(18장)

▶**생각하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18:4)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그 역사를 조용히 감찰하시는 모습을 잘 묘사한 내용이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일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

6월 15일(수) / 사29-31

▶**내용요약**: 29장은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를 심판하신다. 30장은 유다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존하지만 결국 앗수르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31장은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전적으로 그 분만을 신뢰할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있음도 함께 알려준다.

▶**질문:**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하신다고 하는 성은 어느 곳인가?(31장)

▶**생각하기**: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30:18)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당하자 자신들이 의지하고 구원할 강한 자들을 찾는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실 분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 모습을 새가 날개 치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같이 보호하신다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자!

6월 16일(목) / 사32-34

▶**내용요약**: 32장은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 왕국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을 뜻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뜻한다. 33장은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당하게 될 어려움과 함께 반대로 앗수르의 멸망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 34장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질문**: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으로 가련한 자를 멸하려 한다고 하는가?(32장)

▶**생각하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34:16)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사람의 말과 다르게 모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6월 17일(금) / 사39-42

▶**내용요약**: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다. 40장부터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40장에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 41장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킨다. 42장은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

▶**질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어떤 새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묘사하는가?(40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 지속적으로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며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훈계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책망으로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속히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6월 18일(토) / 사52-54

▶**내용요약**: 52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다. 특히 13절부터는 구원자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의 비천한 모습과 고난과 승리를 명확히 선포한다.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 )때문이라"(53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면서 독생자를 대속물인 어린양으로 주셨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사랑의 빚을 이제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자.

6월 19일(일) / 사61-63

▶**내용요약**: 61장은 먼저 메시아의 사역이 나오며 이후 그가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과 기쁨이 기록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후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한다.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다. 62장은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신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이 예비될 것을 말씀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는다. 63장은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이어 하나님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여호와의 (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61장)

▶**생각하기**: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열거하면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란 구절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들 역시 사역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부터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구하자!